

## 20년을 진단하고 20년을 준비하며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심사평가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년 7월 1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심평원은 2019년 한해 97조원(약15.7억 건)에 달하는 진료비를 심사했으며, 암·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에 대해 진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국민의료와 밀접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병원평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험수가 개발, 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빅데이터 관련 연구 수행, 의약품과 치료 재료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심평원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입국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실시, 확진환자 이력관리시스템,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총 119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였고,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양질의 임상데이터 구축 및 공유,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개발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한편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진료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의 개편,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관리 시스템 마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심평원이 변화·혁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기도 하다.

지난 7월 2일 개최한 심평원 창립 20주년 기념 심평포럼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전문가로서 학계, 정치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초대하여,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명과 앞으로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심평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제14권 4호에서는 포럼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제언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방안, 위기 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대응 방법,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심평원의 혁신 방향 등의 논의가 보건의료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주춧돌이 되고, 스무살을 맞은 심평원이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